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여인 오장설'의 문제점

<증일아함경> 제38권에서는 모니라는 여인이 수기를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지만 그럼에도 수기를 줄 수 없으며, 여인의 몸이기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보장여래의 말씀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중본기경>, <오분률>, <법화경> 등 많은 경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여인은 전륜성왕이 될 수 없다. 둘째 제석천왕이 될 수 없다. 셋째 범천왕이 될 수 없다. 넷째 마왕이 될 수 없다. 다섯째 무상도를 성취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의 몸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불교학자들은 성불의 다섯 가지 장애라는 의미에서 오장설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경전에서 오장설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설법을 마치는 것은 적어도 당시에는 오장설이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초일명삼매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여자의 몸으로 다섯 가지를 획득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성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다음 생애에 남성의 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제석천왕등 5가지 될 수 없다"

경전편집때 힌두의 성차별시각 반영

<초일명삼매경>에서는 여인오장설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용맹하고 욕심이 적으면 제석이 될 수 있는 데 잡스럽고 악독하며 교태가 많기 때문에 제석이 될 수 없다. 둘째 청정행을 받들고 더러움을 없애며, 네 가지 등심(等心)을 수행하고 네 가지 선정을 닦을 것 같으면 범천이 될 수 있는 데 음란하고 방자하며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천이 될 수 없다. 셋째 열 가지 공덕(십선)을 구족하고 삼보를 공경하며, 효도로 양친을 섬기고 장로들에게 겸허하게 순종하면 마왕이 될 수 있는 데 경박하고 불순하며 정법을 훼손하므로 마왕이 될 수 없다. 넷째 숨기는 태도가 84종이며, 청정한 행이 없기 때문에 성스러운 제왕이 될 수 없다. 다섯째 본래의 법인을 깨닫고 일체가 허깨비, 꿈, 그림자 등과 같고, 오온이 본래 없는 것이며, 3취(趣)의 상이 없다고 분별하면 성불할 수 있는 데 색욕에 탐착하고 정이 흐리며, 태도가 솔직하지 못해 신구의 3업이 다르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다.

경전의 설명에 의하면 교태가 많음, 음란하고 절제가 없음, 경박하고 불순함, 잘 숨기고 청정행이 없음, 색욕을 탐닉하고 솔직하지 못하며 행위가 반듯하지 못함 등이 여인이 다섯 가지 장애를 지니게 되는 이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의 문제는 여성들에게 공통되는 성질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혹은 경우에 따라 이상의 성향들을 충분히 가진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상과 같은 경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구니들이 깨달음을 노래하고, 청정한 수행을 했기에 부처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전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처님 스스로 아난다에게 말한다. "만약 여인이 여래가 설한 법과 율에 따라 출가한다면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습니까?" "아난다여, 여인이 법과 율에 따라 출가한다면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다." 이상은 <비구니건도>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오장설을 말하는 경전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을 주기에 충분하다. 결국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숫타니파타>에서는 "태생을 묻지 마라. 행동을 물어라. 불은 실로 모든 장작에서 나온다. 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성자로서의 도심이 견고하고, 참괴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면 고귀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의 장애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단정은 부처님의 사상에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방대한 불교경전 속에서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 수행자들은 일찍이 없었다.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인도사회문화의 배경 속에서 여성들이 그러한 문제의 부당함과 부정의함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시킬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우선 불교라는 종교문화가 발생하여 성숙하게 되는 터전은 여성들이 경시당하고 있던 힌두사회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더하여 불교교단의 주축인 비구들의 50%이상이 바라문 출신이었다는 점도 불교의 여성관을 이해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힌두 사회의 관습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몰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불경의 편집과정에서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나를 찾는것 가장 급한 일

지상 백고좌

정 일 스님

(보광사 조실 · 선학원 이사장)

'일구(一句)'는 부처님 깨달음이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과 평생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이 일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 일구를 들어보여도 중생들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 근기에 맞춰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 '이구(二句)'입니다. 부처님 49년 설법은 다 이구에 해당합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이 깨달은 후에 하신 모든 말과 행동도 이구입니다.

'일구'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평상심'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것을 몰라요. 처음에는 일상생활 그대로가 '도(道)'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일구는 '선(禪)'이라고도 합니다. 선은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깨달으면 모두가 부처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견성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성장을 해야 세상사 모든 것을 알게 되듯이 견성도 갓난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장을 위해선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점수(漸修)라고 합니다. 점수는 닦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혼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깊은 경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조스님께서 이치적으로 잘 따져서 가르침(방편)을 일러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오해를 일으키는 무리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스님께서는 법문할 때 <육조단경>을 즐겨 인용하셨고, <서장>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장>을 전부다 거꾸로 뒤집어엎어 말도 안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 가르치기 위한 방편인데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육조 스님 말씀대로라면, 뜻을 보지 않고 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거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니 세상을 거꾸로 볼 수밖에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 것은 성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고요한 생활을 말합니다. 고요한 생활이라고 하면 번뇌가 없는 것을 말하고 부처님 깨달음이란 것은 일체 번뇌가 없는 생활입니다.

무당 되는 것도 전생부터 씨를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들이듯이, 무당이 된 사람은 전생부터 무당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낸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듯이 자기가 심은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업의 껍데기를 다 벗어야 합니다. 가르침대로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뛰어넘을 수 있고, 화택(火宅)을 벗을 수 있습니다. 거기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무당집에 드나들면 혹을 떼러 갔다가 붙이고 옵니다. 사주 관상 등을 다 뛰어넘으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뭣고'는 여러분의 본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망상이 붙게 됩니다. 깨달았다는 그 마음을 조심하고 오직 화두만 참구하십시오.

◇법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는 정일스님.

내 허물만 보고 자신에게 엄해야 지혜 얻게 돼

선학원 신도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도 승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만 하면 모두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에서 8시간 자면 좋습니다. 더 이상자면 해로워요. 8시간 일하고 또 8시간은 노는 시간인데, 이때 공부하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꼭 8시간만이 아니라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고 먹고 머물 집 있으면 다 갖춘 것인데도 중생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급한 것이 있으니 나를 찾는 일입니다. 이것이 급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간절하게 나를 찾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간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망상이고, 허깨비입니다. 꿈이 찬란하듯이 망상 또한 찬란합니다. 불여우보다 더한 게 변덕스러운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염불하고 주력해서 잠재워야 합니다. 남방불교에선 위빠사나라고 합니다. 미친 여우처럼 마음에 망상이 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걸을 때도 왼발 오른발 내놓으면 되지, 자꾸 망상 내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기초입니다.

결국 위빠사나는 부처님 가르침의 입구를 통과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입구를 지나치고 나면 부처님의 최상승선은 화두선입니다. 근래 책자에는 인도나 중국이 다르다고 합니다. 배운 사람들이 엉뚱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법에 대해 엄격한 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에 대해 너무 관용을 베풉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전법을 방해하는 마구니로 둔갑하게 되니 큰일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엄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생에게 부처님 법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출가수행승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행자들이 법에 대해서는 관심없고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분발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정일 스님은…

지금도 수행고삐 죄는 선객 상좌들 지도 추상같이 엄격

정일 스님은 일흔의 세수에도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선객으로서, 때론 서릿발 같은 엄격함으로 상좌들의 공부를 챙기시는 것으로 유명하시다.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님은 1956년 조계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어 40여년을 망월사, 범어사, 용화사, 통도사, 백련사, 만덕사 등의 선방을 돌며 수행했고, 해인사와 불국사, 용화사, 정각사 선원장과 선학원 중앙선원장을 맡아 보셨다. 특히 망월사에서는 천일기도를 성만했으며 이후 한시도 게으르지 않은 수행과 투철한 용맹심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90년부터 서울 우이동 보광사 조실로 주석하며 93년부터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을 맡아오고 계시다.

◇정일 스님은 "깨달음엔 승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늘 수행과 육바라밀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신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이 멍텅구리입니다. 자기 마음을 희미하게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귀신이고 멍텅구리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바로 '습'입니다. 또한 자기는 잘나고 남은 못났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업이고, 귀신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무당집 귀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학으로는 귀신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는 미생물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습생'은 과학으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태란습화(胎卵濕化), 사생(四生)을 가진 것. 여기에 빠진 인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고통 받는 중생을 안내하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처음 깨달으시고 '나는 안내자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도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고 떠벌리고 거짓말을 하지만(전지전능하다는) 거짓말은 금방 탄로 나고 맙니다.

부처님은 다음 세 가지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업을 대신 없애주지 못한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량한 중생을 다 제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전지전능하다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부처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주 생긴 지가 150억년 밖에 안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의 수준입니다. 공자 노자 예수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50억년 됐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바꾸려면 앞으로 엄청난 과학발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복제기술이 극락세계를 흉내내다 보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복제양이, 15년 수명에 6년밖에 못 살고 각기병에 폐렴이다 뭐다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이러한 복제라는 것이 발달하면 할 수록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되고, 지구상에 가지가지 혼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이라고 맹신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복제란 기술은 너무도 위험합니다. 기술로 사람을 복제한다? 줄기세포를 쥐에 이식해서 인간이 쥐를 배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사람도 아니고 쥐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경전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법으로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앞서갑니다. 만나기 어려운 이 가르침을 만나게 됐으니 항상 정진하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견성은 갓난애 같은것 잘 키우기 위해 漸修필요

복을 만났을 때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분발해야 합니다. 의식주가 급하긴 하지만 똑같이 급한 것이 나를 찾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공부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처음엔 곧바로 화두선이 안 되니까 경도 읽고 염불도 하고 사경도 하고 주력도 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법문을 듣고 분발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석 반지를 잃어버리면 몇날 며칠을 찾느라 야단을 피지만 이 중요한 가르침을 잃고서도 아까운 생각도 않습니다. 법문이라는 것은 결국 그 보물을 찾으라고 일깨워 주는 것일 뿐입니다. 엄청난 보물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멍청하니 앉아있다니 한심스러운 노릇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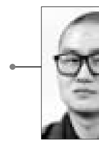
부처님 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억지로 붙인 이름이 부처 '불(佛)'자, 길 '도(道)'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부처라는 것도 도라는 것도 가명입니다. 이름붙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도들의 말대로 내 몸, 네 몸을 나누고 망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외도들은 겉모양만 보고 말하지만 부처님 법만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자리에는 망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원리전도몽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두선에 들어가면 그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틈틈이 참선하십시오. 신라시대에는 아들 딸 낳고나면 절에 들어가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합니다.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만 보시고, 자꾸 안으로 자신을 살피고 자신에게는 법을 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남의 허물 들추면 내 지혜 없어지고 업이 쌓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지요? 자기 허물만 보겠다는 뜻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능히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만초스님

세상에는 유별나게 일하는 것 같은 표를 내면서도 사실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진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척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든, 또 어디서든 매사를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한다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으리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세상이 된다면 여기가 곧 극락일 텐데 현실을 보면 거리가 멀다. 그러나 나의 도반 중에는, 늘 노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는 멋쟁이가 있다.

만초스님은 체구는 작고 야위어서 왜소한 편이지만 늘 자세가 반듯하고 스님들 특유의 기품이 살아있는 스님이다. 말소리도 크지 않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온화한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다. 거기다가 짜증 내거나 남을 비방하는 일을 거의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지금껏 이렇게 인욕 하는 스님을 본 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비보살'이다. 통도사 여러 소임 중 회계(지금은 재무과장이라고 한다)가 있다. 회계소임은 재정을 움직이는 자리기 때문에 객스님부터 시작해서 절 살림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공사 현장의 인부는 물론 직업적으로 절에 구걸하러 오는 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순순히 이야기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때에도 스님의 부드러움은 언제나 어색한 상황을 조용하게 마무리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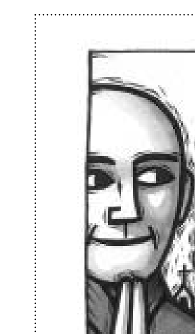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법명이 '만초'라서 같이 소임을 보던 몇몇 스님들은 '잡초'라고 부르기도 했다. 말은 안 되지만, 일만 만(萬)자에 풀 초(草)니까 그냥 잡초라고 부른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잡초의 특성은 어디서나 자신의 내재된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데 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해도 끝내 자신의 싹을 틔우고 마는 엄청난 생명력을 자랑한다. 그래서인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님의 행동은 자유롭고, 적응을 잘한다. 서정적인 분위기에서는 부드러운 시인이 되고, 학문적인 분위기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논리철학자가 되는가 하면, 편안한 분위기에서는 꾸밈없이 천진한 어린아이가 된다. 생각지 못할 잔잔한 장난기가 당황스러울 정도다.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순박한 재치와 고도의 유머가 있어 재미가 있다. 서로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먼저 한바퀴 더 저만큼 가고 있을 정도로 생각의 회전이 빠르다.

울산 내원암 주지소임을 살 때 그의 열린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울산지역의 이웃 종교인들과 모임을 만들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가 하면 종교 간의 화합에 앞장섰다. 절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자연스레 찾아오고, 스님 또한 성당이나 교회를 부담없이 방문해서 종교 간의 친목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공유하는 여유를 보였다. 종교 간 대화와 교류의 모습은 이 시대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특히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정신세계의 순화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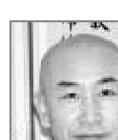
어느 해에는 산사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가

자세 늘 반듯하고 곧은기품 간직 분위기따라 시인도…철학자도…

보았다. 절 입구 너른 공터에서 동네잔치를 벌였다. 산색은 봄빛으로 푸르러 어우러지고, 사람들은 즐거운 미소로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맛있는 즉석 음식이 잔칫집을 연상케 했고, 준비된 공연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청중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었다. 사실 내원암은 20여년 동안 만초 스님 전임 주지인 호랑이 노스님에 의해서 조용한 절로 인식되던 곳이다. 그런 공간이 젊은 주지스님에 의해 활동적으로 깨어나게 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달라진 절 분위기를 실감하며 즐거운 한때를 함께했다. 문화적인 감각 또한 만초 스님의 숨겨진 매력이다.

그런 활동들이 인정을 받았는지 어느 날 조계종 기획국장으로 간다고 했다. 예산, 법령 개정 등등 조계종 전반에 대해 그야말로 기획을 하는 자리다. 내심 부럽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보람을 보는 것 같아 내 일처럼 흐뭇하기도 했다. 지금은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와 통도사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한 백운암에서 법당 중창 불사를 하고 있다. 그의 여유 있는 마음 씀씀이나 깔끔한 일처리를 보면 이 불사 또한 원만한 회향을 할 것이다.

■ (사)한나래 문화재단 이사장



영험도량

퇴마승 해원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 합니다.

과목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硏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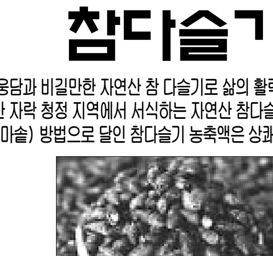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 실버 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숙실평형 : 9.5평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3년 4월 26일 토요일
조계사앞 (4시)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망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조원케미칼라이프 Co. (구)민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반야심경반지

반야심경 270자가 각인된 반지를 펼친 모습

국내 최초로 제작된 반야심경반지
18K Gold 폭 8mm 5.5g (수공이프로 ±5% 오차)
반지 내부에는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정밀하게 각인(양각)되어 있고
외부에는 연꽃을 형상화 한 문양이 새겨져 있음.

농협 131-01-368761 예금주: (주) 엑스피아 금액: 198,000원

주식회사 엑스피아
문의및신청전화 031-382-3719, 080-382-3719
홈페이지 http://www.xpialand.com